

힘의 논리가 만든 主客顛倒

9월주제 '주한미군'

주한미군이란 말을 다시 새겨본다. 한국에 머무는 미군이란 뜻이다.

미군이 미국이 아니고 왜 한국에 머무는가?

은혜를 가시같은 털이 돋고 네발로 기발함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새빨간 공산오랑캐가 남한을 호시탐탐 엿보니까 연약하고 천사같은 자유한을 지키기 위한인가?

그렇지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이 오면 국민학생부터 일한 인까지 길거리에서 서서 미국 국기를 흔들고 너무 당연하고 미국이 배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잘것 없는 한 국가에 승전국의 입장으로 전주하여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서 자기네 제국주의 이익추구로 한 국민의 혈육을 착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소 핵전쟁이 일어났면 자기국토와 국민의 방생능 오염과 희생없이 세계를 능가하기 위해 한국을 핵무기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세계정치사와 외교적 비밀에 은폐된 본인은 양국의

논리에 모두 동의할 수가 없다. 단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주권국가의 군사적존재를 타국군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정

그렇다고 이조말처럼 왜곡으로 일관하여 나라를 망청이로 만들어도 안된다. 요사이 세계가 마치고 있다.

우리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맘에 들지않는, 머리는 좋으나 공부안한 정치꾼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단지 우리주위를 살피며 한 마다 하고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어차피 공부는 맘에 없으니 등록금이나 싸게하여 졸업장이 나 따지는 생각이 전부는 아닌지? 교수는 공부와 연구를 열심히 하는가?

학원, 학원, 학원, 학원, 심지어 종교까지 패거리 지어 교육을 망

상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의 잘못인 것이다. 오죽 못났으면 외교에서 옳고 그름이 어디 있는가? 힘의 논리가 압도하는 것을.

힘을 키워야 한다. 과거를 반성하고 앞일을 바로세워야 한다.

일제하에서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애국지사

가 있었다.

오디오 방송의 한계와 오류 극복할 자주적 대학언론

수원 V.O.U. TV방송건설에 부쳐

대학의 소리 방송국은 10년의 짧은 역사속에서 8경의 가곡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TV방송준비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제 수원캠퍼스에 V.O.U.의 위상을 하우대중들과 함께 하마 비디오통의 생생한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학우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V.O.U.의 TV방송준비사업은 지난 87년 학회관내 프레스센터 이주가 확정되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었다.

V.O.U.의 TV방송의 최종목표

는 CA T.V. 즉 케이블(cable) T.V건설이다.

캠퍼스 전역에 우선 케이블을 설치한 학생회관 비디오통 스튜디오에서 송출, 동시에 전 지역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초엔 우선적으로 학생회관 내에 케이블을 설치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며 2~3년 내에는 우리 학교 전역에 케이블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요사이 자주적 대학언론이란 말이 많이 나옴에 자주적, 맞는 말이 많다. 대학언론은 자주적이고 대

중적일때 그 존립의 가치가 있다. 언론이 특정기구나 특정정파의 입장에 편향되어 홍보, 선전 매체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결코 학교의 3주체의 대중적 효용성에 대한학언론이 자리매김되어져야 하는 대명제에 어긋난다.

또한 이는 결코 자주적이지 못하며 모든 언론매체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언론 연합회, 위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V.O.U.는 지난 10년의 역사 속에서 과학적인 자체비판과 반성을 토대로 매체혁신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과학적인 언론관의 확립과 대중과 항상 함께하며 대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토대로 계속 발전해가는 언론기관으로서의 거듭나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 오디오 방송의 한계와 오류를 정확히 극복해 내고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인 전달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T.V 방송을 자기적인 전망과 계획속에 건설해 낼 것이다.

학생, 교수, 교직원들 해내 모든 성원들의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보다 합리적이고, 확고한 '전망'을 담보해가는 T.V. 방송을 건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을 당부한다.

이제 '고향'만이 우리 학교를 상징한다는 것에 어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서한'이 '고향'의 부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권리와 자부심이 서울 캠퍼스와 동등하지 못할진대, 언제까지 좌시할 수만 있는 노

박 준 호

(사회대무역·3)

고 영 재

(경의·2)

명예기자석

명예기자석은 경회가족 모두의 참여를바랍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 독자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4매

◇보낼곳 : 서울 <본사편집실>, 수원 <공과대학 614호>

서울캠퍼스에서 유래된 '고향' 전체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지명필요

'고향'이란 말은 서울캠퍼스의 지명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흔히 경회대학교를 상징하는 말로도 쓰여져왔다.

예를 들어, 교지의 명칭도 그

고향, 대학주보의 '고향만평', '고향제전', '고향 장학금' 등이 그렇다.

수원캠퍼스가 서천골에 자리 잡은 지도 어떤 10년을 넘어 서고 있으며, 서천골에는 8천 여 학우들이 존재한다.

이제 '고향'만이 우리 학교를 상징한다는 것에 어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서한'이 '고향'의 부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권리와 자부심이 서울 캠퍼스와 동등하지 못할진대, 언제까지 좌시할 수만 있는 노

이 상 원

(사회대경영·2)

알 림 터

(경의·2)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일 총학생회 주최로 학우발발족식 및 9월 투쟁 선포식'이 노천극장에서 있었다.

외악에서 4시간 동안 대동 단결,대동투쟁' 외에는 별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집회속에서 나는 심각한(?) 문제의식

선전과 지속적인 목적의 공유를 위한 모임'으로 규정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의식의 공유목이 제한적으로 또 목적의식의 공유자체가 일회적 강

으로 느껴진다면 결국 집회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소외받는 대중

요즘 집회속에서의 개개인이 '듣는기계'로 전략해 버린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취급당했을 뿐이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단지 국이나 보고 먹이나 먹으란 말인가?

단지 우리들은 그런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첫번째 문제 의식인 소위 '학우 대상화'는 집회 주최측의 학우 대상'에 대한 그들의 상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나의 두번째 문제의식이다.

그들이 학우들에게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운동에 대한 지

급하고 뿌듯적인 상패론이라고 생각된다. 총학생회장의 "먼저 자각한 사람이 제 뒤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위로 굳건하게 걸립시켜

내자,"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올바른 나가 우리를 따라 오시오!" 라든지, 먼저 자각한 자가 투쟁의 선봉에 서서 다른 학우들을 이

이해의 차이가 이른바 '독재'로'라는 단 하나의 슬로건 속에 '최고'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용해'되도록 이 선봉에 서는 '가'였던 소영을 사대의 유산을 올바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 공격과 목표주의 그리고 선민적의식으로 특정지지는 소영을들의 운동은 대중과 지대주의 문제를 자각하는가, 못하는가,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87년 6월 항쟁을 마지막으로, 자각하지 못한 대중들의 선두에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변하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럴때만이 진정한 지대를 짊어줄 수 있다고, 그러하여 앞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격하시켜 결국 지도자를 '물신적 숭배'의 세상'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다.

오늘,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잠시 손을 놓으면 편안함이 사르르 밀려오는 생활. 바로 그 생활속에 휴먼테크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조그만 편안함에서 미래의 편안한 생활까지, 휴먼테크를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